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류외자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8:16-18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등불의 비유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9월 8일	9월 15일
장헬렌	서경열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에다시)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것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신자는 나쁜 땅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백배의 결실을 하여야 한다'는 종교적 교훈으로 결론짓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백배, 육십 배, 삼십 배의 열매 역시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씨를 뿌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결실되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오자 한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요? 자기 본성에 이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성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깁니다. 오로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다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다시 자신의 문제에 모든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옥토가 되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길가밭이고 돌밭밭이고 가시덤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나올 때에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옥토로서 열매를 맺는 삶에 동참케 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신자에게 열매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인 것입니다. 그럴때에만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는 열매를 받을 만한 밭인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복음을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 버리고는 할 수 있다 해보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긍정의 힘을 불러 넣어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십니다. 그럴때 할렐루야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저 열매를 닦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부인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